

# 광주·전남 환경단체 “영산강 비점오염원 예산 복원하라”

### 하천 복원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표준...영산강 수질개선 시급 정부, 기후대응담 14곳 발표에 반발...신규담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정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 건설지를 발표했지만, 광주·전남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극한 가뭄이나 극한 호우시 물을 가뒀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담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는 "주민들의 동의조차 없이 갭감으로 진행된 담 건설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신규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예산을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담을 짓겠다고 전국 1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기후대응담 후보지로는 화순 동북천과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2010년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새로운 담을 건설하지 못했다는 점과 기후위기로 짧은 시기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홍수와 극한 가뭄, 장래 신규 물 수요 감당을 위해선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

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지난 2023년 남부지방에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환경부의 담 건설의 한 이유로 설명됐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구실뿐인 기후대응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체는 "담건설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당장 매년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도 예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담을 해체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질적 국제적 표준이며, 이를 역행하는 정부의 담 건설 계획 등은 우리나라의 물질적 80년대로 회귀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반대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결산 기금 심사소위원회를 통한 기후대응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두고 국회에 전액삭감을 요구

하고 있다.

단체는 "담 후보지 10곳의 기본구상, 3곳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의 명목으로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달 발표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는 10곳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24년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63억원은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안에 지역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강과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대강(영산강, 한강, 금강, 낙동강) 중 영산강청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예산은 2022년 110억 3300만원에서 7억 3600만원으로 93.3% 삭감됐기 때문이다.

단체는 "금강이 50%, 한강이 20%, 낙동강이 8.3%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면서 "영산강은 극심한 가뭄 때도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못할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데, 이같은 예산 삭감은 영산강 수질을 최하위 수준으로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후대응담 후보지는 목적별로 다목적, 용수전용, 홍수조절 3가지로 나뉜다. 다목적 담으로는 경기 연천군의 야미천, 강원 양구군의 수입천, 충남 청양군의 지천, 용수전용으로는 화순군의 동북천을 비롯해 강원 삼척군의 산기천, 충북 단양군의 단양천, 경북 청도군의 운문천이 해당한다. 홍수조절용으로는 순천시의 옥천, 강진군의 병영천을 비롯해 경북 김천군의 감천, 경북 예천군의 용두천, 경남 거제군의 고현천, 경남 의령군의 가래천, 울산 울주군의 회야강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올해 마지막 '의류 교환 파티-바꿔 입장' 하세요

### 광주일보·환경단체 유어스텝 공동 가을·겨울 의류...23일 한걸음가게

입지 않는 가을·겨울 옷을 다른 사람과 바꿔 입어 의류 폐기물을 줄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의류 교환 파티가 열린다.

19일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한걸음가게(광주시 동구 충장로 45-2, 2층)에서 올해 마지막 '의류 교환 파티-바꿔 입장'이 진행된다.

이 행사는 의류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광주일보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올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겨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가을·겨울 의류(모자, 가방) 3점 이내를 가져와 가져온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옷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의류 및 생활잡화를 현장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부스에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1회차(낮 12시30분-오후 1시), 2회차(오후 1시-오후 1시 30분), 3회차(오후 2시-오후 2시30분) 등 총 3회차로 진행된다. 회차 당 15명씩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이 필수다.

패션의류 업계는 전세계 탄소 배출 비중의 10%, 수질 오염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에서 지난달 열린 '의류 교환 파티-바꿔 입장'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옷을 고르고 있다.

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섬유가 의류의 60% 이상을 차지해 의류 조각 시 배출되는 유독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쓸모 워크숍'도 함께 열린다.

'티셔츠 안 만들기 워크숍'(낮 12시- 낮12시 40분)과 '티셔츠 안 직조 체험'(오후 1시-오후 2시)은 더 이상 입기 어려운 티셔츠로 티셔츠안(yarn)을 만들어본다. 티셔츠안 티코스터, 선물포장 끈 등을 제작한다. (참가비 1만원)

간단한 직조 기법으로 한 줄 한 줄 쌓아올려 매트 를 만드는 '릴레이 매트 직조 체험'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분 단위로 진행된다. 완성된 매트는 참여자의 이름과 함께 한걸음가게에 전시된다.

뜨개 수선 워크숍도 진행된다. 다양한 색의 폐기 털실, 자투리 실을 활용해 하고 싶은대로 수선해보는 시간으로 뜨개질이 처음인 시작반(낮 12시-오후 3시)과 뜨개질 경험이 있는 반(낮 12시 30분-오후 3시)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비 1만원)

기타문의는 한걸음가게로 연락하면 된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무등산국립공원서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새 서식지 발견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시민과 학자 식물조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신규 서식지와 추가 개체를 발견했다

고 19일 밝혔다.

왕다람쥐꼬리는 전남·제주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돼 온 희귀식물로 숲 속 나무, 바위, 너덜 지대에서 주로 자란다. 과거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북쪽 사면에서 소규모 서식지가 확인된 바 있다.

식물조사단은 생태 분야를 전공한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5월부터 3차례 조사를 통해 총 8개 개체를 발견했다.

무등산 사무소는 특별보호구역 외 신규 서식지가 발견된 데 따라 무등산이 왕다람쥐꼬리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확인하고 2025년까지 조사를 연장해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장항준 감독, '청년, 가능성에 대하여' 특강

### 광주청년센터, 26일 명사초청 강연

광주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장항준 영화 감독을 초청해 '2024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한다.

광주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원동력을 주고자 장항준 감독에게 인생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화 '기억의 밤',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청년, 가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특강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광주시 청년은 물론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이다.

특강 참여 희망자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



장항준 감독

청하거나 광주청년센터교류협력팀(070-4204-9625)으로 연락하면 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센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특강을 통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항준 감독의 인생과 인생 철학을 들으며 용기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1회 김태호PD, 2회 최현우 마술사 등 매년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북구, 취약계층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 다음달 10일까지 돌봄이웃 대상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가 추진된다.

2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만 3000여 포기'의 김장을 준비 중이다.

별도로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북구자원봉사센터, 바른계실기운동복구협의회, 장애인복지회 등 유관 기관·단체도 김치 나눔행사에 참여한다.

또 북구는 김장 소식이 알려지며 민간 업체와 단체 등의 후원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김장 나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눔 대상은 돌봄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다. 나눔과정에서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

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겨울맞이 김장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며 "이번 김장 나눔 행사가 이웃의 훈훈한 겨울나기를 뒷받침하고 지역사회 나눔 온도를 높여 올해 겨울도 따뜻한 정과 행복이 넘치는 북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김장 나눔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